

기도의 달
선교주일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기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공명
새로운 생명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September 25,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마가복음 5:1-20 소원대로 되지 않는 때와 하나님의 계획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송 / 425장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결단의 기도) <small>(통일찬송가 217장)</small>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유덕하 집사, 오정은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small>(통일찬송가 348장)</small>
삶과 세상으로	* 찬 양 / 가서 제자 삼으라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데살로니가후서 2:13-17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의 굳건함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의 기준과 시각으로** / 마가복음 2:13-17

자신이 만든 틀 안에서 세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자신을 의인이라며 자부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큰 도전이 된다. 그들이 자신만의 잣대로 예수님을 정죄했듯이, 우리 역시 자신도 모르게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고 있지 않는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경험과 지성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예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며, 예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봄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의 연륜이 늘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는 대신 고정관념은 더 굳어지고,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기 쉽다. 열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잘못된 생각과 방식은 고치고 고정관념은 깨뜨리며, 나아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소원대로 되지 않는 때와 하나님의 계획 / 마가복음 5:1-20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거라사에서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빨리 그 지역을 떠나가시길 요구한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귀신 들렸던 사람의 청을 예수님이 거절한 이유는?

간구가 응답되지 않을 때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자

소원대로 되지 않는 때와 하나님의 계획 / 마가복음 5:1-20

예수님이 거라사를 방문하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다. 그의 안에는 아주 많은 수의 귀신, 즉 군대 귀신이 있었다. 예수님은 군대귀신에게 명해 그로부터 나오도록 했다. 그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간구해 돼지에게 들어가게 됐다. 결국, 귀신 들린 돼지 떼는 물에 빠져 몰살된다. 군대귀신이 떠나자 그는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게 됐는데,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곳에서 떠날 실 것을 간구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고침을 받은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한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신 예수님을 따르며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에 ‘허락’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온다. 13절에서 예수님은 군대귀신의 간구를 허락 하셨다. 이어 19절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허락 여부에 초점을 둔다면 귀신은 허락을 받았고, 고침을 받은 사람은 허락을 받지 못한 의아한 상황이 된다.

예수님은 왜 귀신의 간구를 허락하셨는가? 귀신으로 때문에 고통받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괴롭히는 귀신의 간구를 허락하신 것이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귀신이 아니라 고통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귀신들렸던 사람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가 하기를 원하신 바였다. 그런데 그는 가족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서 전파하였고, 모든 사람이 듣고 기이히 여겼다고 한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간구가 허락되지 않은 것에 낙망하는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설사 우리의 간구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앞길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삼과 신앙

살리는 기도

이심전심이었다.

남의 죽음을 기도로 가슴에 떠안아보니 내 생명도 작아 보였다.
기도를 통해 남의 고통에 동참해보니 내 삶이 달라 보였다.
죽을 일로 가득한 나의 영적 상태와 그 게으름이 깨달아 졌다.

연약함. 자신을 불살라 사역하지 않는 어정쩡한 소명의 상태,
내 시간이나 에너지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무지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 몰라서 죽어가는 지인들을 위해
살리는 기도를 하지 않던 미적지근한 상태가 엿보였다.

그전까지만 해도 나는 펄펄 살아있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살리는 기도를 하자 나의 죽은 상태가 드러났다. **분명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남 살려달라는 기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살려달라
외칠 때마다 내 기도가 되었다.**

당시도 나는 성도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었다.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러나 살려달라는
간절함은 그다지 없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영적 생명력이 충분한
기도꾼인 줄 착각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내 착각을 부셨다.

첫째, 나에게서 생명력이 없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풍성하다(요 10:10). 이는 멈추거나 잠들어
있을 수 없는 강력이다.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음도 생명으로
뒤집어 버리는 힘이다(마 10:1-8).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능력자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신다(갈 2:20).
그런데, 이걸 평소에 잊고 산다. 그러다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나서야
깨달는다. 그저 잘 지내는 줄로만 알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났다.
남 살려달라고 외치고 나서야 내 처지가 보였다. 생명력이 없었다.
나는 동혁이네의 고통의 문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저질 능력의
소유자였다.

둘째, 풍성한 생명력이 있어야 희생이 가능하구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끝이 없다(골 1:17-19). 죽음도 이긴다(행 2:24).
그 안에 넘치는 생명력이 있다. 풍성하다. 그런 생명이라야 희생해도
산다. 살린다.

풍성한 생명력이 주어진 다음 단계는 자기희생이다.

남 살리는 생명력의 짝은 자기희생을 뚫고 터져 나온다(요 12:24).

살리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에 감동되면 그때부터 자기희생이
가능해진다. 동혁이네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후에야 나는 자기희생을

배울 수 있었다.

셋째,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을 탄생시키신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그분의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한다. 크리스천은 죄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의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다(롬 6:11). 진정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신다(요 17:18).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요 17:20). 이 일은 예수님의 기도로 진행되었다(요 17:1-21).

오늘날도 예수님의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한다. 동혁이 아빠도 그랬다. 시한부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유예기간을 얻었다. 이후 그를 통해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 나도 그래야 한다. 누군가에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는 새 생명의 전조다. 살리는 기도를 통과할 때 죽음은 생명을 낳는다.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까지 나는 동혁이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해였다. 알고 보니 나를 위한 기도였다. 기도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성경을 펼쳤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년을 더하고 - 사 38:5

동혁이 아빠만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니었다. 나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살고 있었다. 그렇게 내 생명도 연장되었다.

송준기 목사, 『살리는 기도』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명왕기하 20:5-



마음이 별로라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교회가 아니라서,
시간이 없어서 등등

갖가지 핑계로 기도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환경과 조건을 따졌었는지요,,

내가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반겨주십니다.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년을 더하고”

이사야 38:5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